

“도교육청, 해외연수비 추경 예산으로 변경을”

최영규 도의원, “코로나19 여파로 57억여원 집행불가 예상”

전북도의회 최영규(더불어민주당·익산, 교육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7일, 도교육청 해외연수비 약 57억을 전액 감액하여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전북도의회 의원 국외정책연수비 또한 전액 감액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장단에 의견을 전달했다.

최영규 의원은 “국내 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세계적 공포와 위협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올해 도교육청 해외연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관련 예산을 불용시키기 보다는 전액 감액해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지



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최 의원은 따르면 2020년 도교육청 국외연수비 예산은 총 64건, 약 57억1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외연수 대상국의 대부분이 미국, 중국, 유럽 등의 선진국이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극심한 국가들이기에 사실상 예산집행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최영규 의원은 “도교육청이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여 이달 말 있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사·의결하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차원에서 “전북도의회 의원 국외연수비 또한 전액 감액하여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의장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국내 상황이 다소 호전됐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긴급한 재난상황에 맞는 적극적으로 과감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해외연수비와 같이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방과후강사와 같이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소외된 교육가족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추경에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검역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천공항 검역소 관계자를 비롯한 관계부처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간호사, 국민 생명 지키는 일등 공신”

문 대통령, 세계 보건의 날 맞아 찬사 보내 인천공항 검역 현장 방문도... “고맙고 또 고맙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간호사 여러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의 전장 일선에서 싸우는 방호복의 전사”라고 찬사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은 뒤 “격무에다 감고 가장 가까이 가장 오래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숨은 일꾼이며 일등 공신”이라며 “하지만 ‘의료진의 헌신’으로 표현될 뿐 의사들만큼 주목받지 못한다. 조명받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조연들에게 상장을 드리고 싶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마침 오늘 ‘세계 보건의 날’ 주제가 ‘간호사와 조산사들 응원 해주세요’라고 한다”며 “우리 모두의 응원이 간호사분들께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자긍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한마음으로 보내는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욱 살만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인천공항 검역 현장을 깜짝 방문한 사실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없이 헌신하는 검역 관계자들이 그곳에 있었다. 최근 일일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밤낮없이 땀 흘리는 분들”이라고 소개한 뒤 “고맙고 또 고맙다”고 전했다. /뉴시스

4·15 총선 후보자 이모저모

김윤덕 “이해찬 대표 공공기관 추가이전 제시 환영”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7일 김 후보는 지난 6일 이해찬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역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에서 마련되었던 혁신도시 시는 지방에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의 인구증가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과 주택이 늘어났고 상업시설이 새로 확충되었다. 이에 따른 지방 세수가 상당히 증가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제 채용률이 소폭 증가하는 등 혁신도시로 인한 지역 발전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장점을 보였다”고 언급한 후, “하지만 구도심의 쇠퇴와 산학연 연계의 부족, 가족 동반이 자원의 저조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전진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혁신도시를 신 지역 성장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족동반이주를 75%, 지역 인제 채용률 30%, 삶의 질 만족도 70점, 입주기업 수 1,000개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전북은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전 대상 기관 중 금융 관련 기관인 한국투자유치공사(KCI), 국제금융센터,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전주에 유치해 ‘제3금융 중심지’ 지정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고상진, 상대 후보자 토론 기피 지적

민생당 고상진 후보(익산갑)는 지난 6일 실시한 선관위 주관 TV 토론회는 K모 출마자의 토론 기피로 정책검증을 할 수 없었던 익산시민에게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7일 오전 11시경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다.

이에 고 후보는 “K모 후보는 익산이 만만해 보이는가. 당장 사퇴하라!” 요청했고 자신의 토론 기피가 단순히 홍보 책자와 후보등록 때문이라는 어썬잡은 말장난으로 정책검증을 간헐히 원했던 시민들을 우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후보는 “K모 후보가 익산의 증산층이 떠나는 이유를 교육환경이나 생활환경이 익산이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딸을 강남 명문고 진학을 위해 일선에서 강남으로 이사 간 바 있고, K모 후보의 이런 발언은 교육도시 명성을 재현하려는 익산시민과 교육 종사자 모두에게 커다란 모욕감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익산시민 기만하는 K모 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인사검증 제대로 못한 A당은 익산시민께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여서 밝혔다. /특별취재반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DJ 정신으로 고향 발전 돕겠다”

미래한국 조수진 비례 후보, 전북 방문

“지역주의의 벽을 넘기 위해 끊임 없이 동진정책을 펼 김대중 대통령의 용서와 화합의 정신을 본받아 정치에 임하고 특히 고향 전북을 위해 노력하겠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지도부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7일 전북을 방문했다.

당선권 후보 가운데 4명이 전북 출신이다. 이종성(4번), 조수진(5번), 정운천(16번), 이용(18번) 등 4명의 후보들이 한 자리에서 전북 발전을 위해 합심하겠다고 전북도민의 한 표를 호소했다.

특히 당 수석대변인인 조수진 후



보에 고향 전북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조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익산인 옛 이리에서의 유년시절과 이후 전주에서의 초·중·고 생활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신문기자로서 앵커를 하게 된 것 등을 모두 고향 덕분으로 돌렸다.

조수진 후보는 “20년 넘게 신문사

에 있으면서 안타까운 전북발 소식이 많았다”며 “상산고 문제, 국회 예산배정에서 호남 뒤에 전북이 빠진 것 등은 속상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초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견제하는 매기가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건전한 견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고향 발전에 대한 생각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후보들은 도의회 야외 광장에서 퍼포먼스를 펼치며 자신들의 비례 기호 4번을 적극 홍보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예방수칙을 준수합시다

건강한 숲! 행복한 삶! 부안군산림조합이 함께 하겠습니다.

나무시장운영

정기적금

일반대출
(토지매매외)

임야경영
컨설팅지도

벌초대행

정기예금

기계톱
면세유공급

퇴비·고추 비료 판매

정책자금 대출

조합원가입

임산물 재배지도

인터넷·모바일 뱅킹

공과금자동이체

부안군산림조합